

■ [입시설명회 실태 연속보도 ②] 학교 내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에 대한 비판보도 (2019.12.05.)

학원강사 부르는 중고교 입시설명회, 학교의 진학지도 책무를 망각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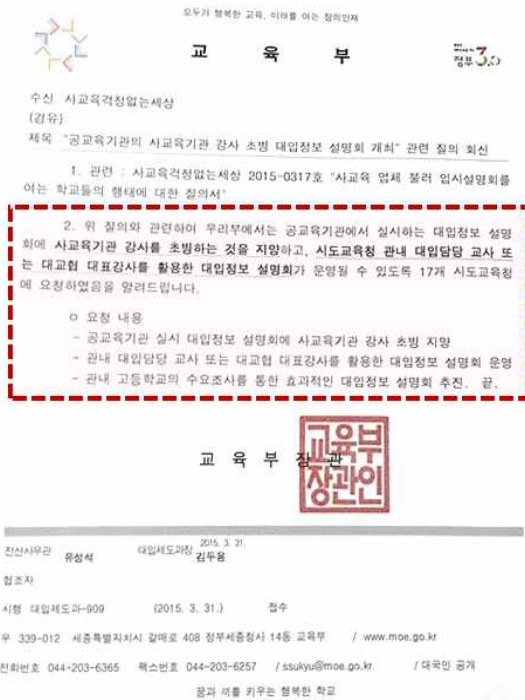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가 초빙된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관할 20개교에서 24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됨.
- ▲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공교육 대입 설명회를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기보다 학교교사 및 대교협 대표강사로 운영하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일선 학교들은 이를 어긴 채 가정통신문으로 사교육 강사 초빙 사실을 알리거나 연사에 대한 대외적 공시 없이 교내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고 있음.
- ▲ 사교육 기관은 학교 설명회를 상품 영업을 위한 진입기회 삼아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해당 기관의 학원·인강·교재·대입지원예측서비스 등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김.
- ▲ 진로교육 차원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연사가 ‘입시 전문가’로 소개되며 사교육 상품 홍보물이 수록된 자료집 및 상품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설명회와 다를 바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 이는 학교가 사교육 홍보 무대를 버젓이 깔아주며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고, 스스로 사교육 광고 대행사로 전락하는 격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진학지도 책무를 몰각한 채 이를 사설학원에 방기하는 행태임.
-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 관내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가 초빙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향후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연사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 △나아가 중장기적

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진학지도협의회 연사 인력풀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교사들을 입시설명회 연사로 양성하는 교원연수 방안도 수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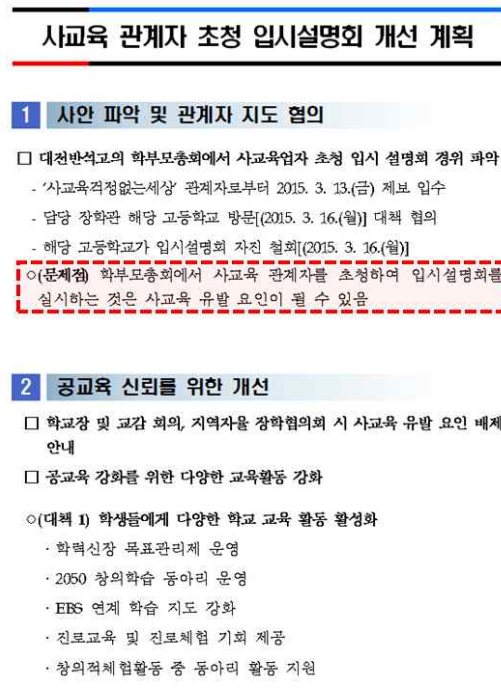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를 초청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문제제기 취지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부는 2014년 4월에 외고를 포함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사교육 관련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교육걱정의 질의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교육 대입정보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 초빙을 지양하고,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로 운영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회신했습니다. 2015년 대전교육청 또한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 계획을 통해 교내에서 사교육 업자를 초청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 사안 파악 후 학교 측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림 1] 고교 내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에 대한 지침

자료: 교육부(2015.)



자료: 대전시교육청(2015.)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가 초빙된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측 조치가 무색하게 아직도 전국 곳곳의 일선 학교에서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시설명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입시설명회 역시 연사 대부분이 입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형 업체들의 임원급 기관장들이었으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관할 20개교에서 24건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사교육걱정측이 파악한 결과에 불과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수의 학교 설명회에 사교육 기관 연사들이 초빙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2019학년도에 사교육 관계자를 초빙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학교

No.	날짜	지역	학교
1	2019.01.14	경기	김포외고
2	2019.02.15	광주	송덕고
3	2019.02.18	전남	무안고
4	2019.02.19	전남	무안고
5	2019.04.12	대전	대성고
6	2019.05.10	제주	서귀포여고
7	2019.05.29	충북	청원고
8	2019.05.30	경기	경기외고(1,2학년)
9	2019.05.30	경기	경기외고(3학년)
10	2019.06.08	서울	양정고
11	2019.06.18	전북	상산고
12	2019.06.27	제주	대기고
13	2019.09.03	대구	대륜고
14	2019.09.26	충남	서일고
15	2019.10.07	경기	내정중
16	2019.10.11	경북	봉화고
17	2019.10.30	서울	단대소프트고
18	2019.11.20	경북	경안여중
19	2019.11.27	경기	운정고
20	2019.12.10	경기	양서고
21	2019.12.10	경북	포항제철고
22	2019.12.11	전북	상산고
23	2019.12.11	울산	현대청운고
24	2019.12.13	대구	경신고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

금번에 조사된 학교 가운데 일부는 사교육 연사를 들이는 교내 설명회에 대한 과거 교육부의 조치를 인식한 듯 학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외부에 일체 노출하지 않거나 연사에 대한 정보만 누락한 채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학교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버젓이 사교육 연사를 초청하였음을 안내하거나, 설명회 현장 사진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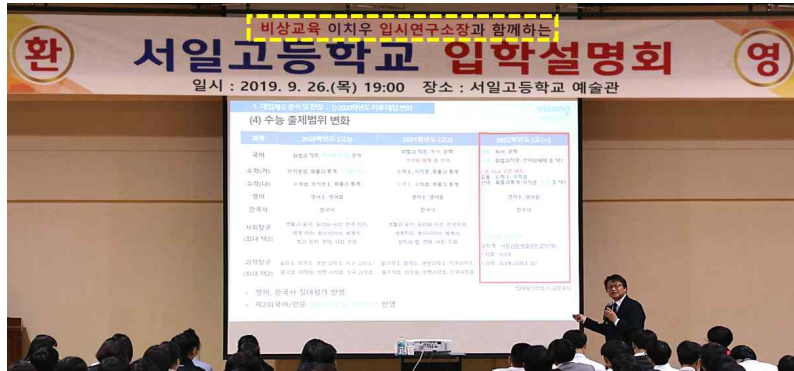
특히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3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을 주제로 한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를 들이는 중학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고교는 중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해당 학교의 입학설명회에 OO사교육 업체의 연사를 초빙하면서 ‘OO교육 □□□입시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입학설명회라고 현수막을 걸어붙였습니다. 해당 사교육 업체가 마치 학교의 스폰서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림 2]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학교측 홍보물

<p>제목 2020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설명회 안내</p> <p>번호 1865 조회수 2038 작성자 오영석 등록일 2019-06-18</p> <p>2020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p> <p>1. 일시 : 2019년 6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 3시</p> <p>2. 대상 : 3학년 재학생 및 학부모</p> <p>3. 장소 : 인문사회계(신강 101호), 이공계(강당)</p> <p>4. 강사 : 이종서(이투스 부사장), 김병진(이투스 교육연구소장)</p> <p>2020학년도 입시의 시작입니다.</p> <p>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입시전략과 학습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상산고등학교 3학년부 드림</p>	<p>가정통신문 학교소식 > 가정통신문</p> <p>제목 경기도 고등학교 성남지역 2020학년도 학생 배정방안 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 안내</p> <p>이름 김정숙</p> <p>조회수 116</p> <p>등록일 2019-10-07</p> <p>내용</p> <p>1. 일시 : 2019.10.21 (월) 13:25-16:30</p> <p>2. 장소 : 예지원</p> <p>3. 대상 : 1,2,3학년 학부모(1부) 및 3학년 학부모(2부)</p> <p>4. 주제 : 1부-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자녀 학습 지도 방법 강사: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p> <p>2부-평준화 지역 고교 배정 방안 설명</p>
--	--

자료: 상산고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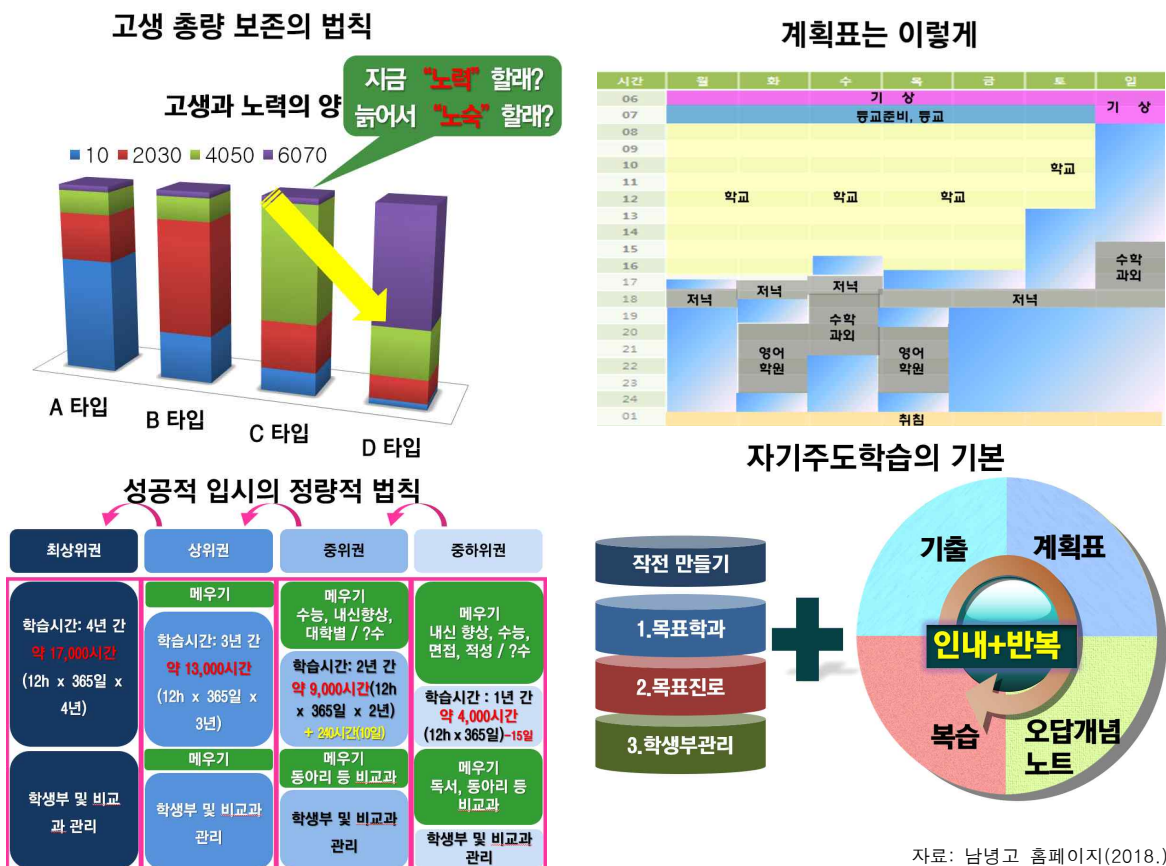
자료: 내정중 홈페이지



자료: 서일고 홈페이지

사교육 연사를 학교에 초빙한 설명회는 그 내용이 사교육 입시설명회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입시업체에 소속된 연사가 학교에서 고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시 설명회 PPT에는 ‘지금 ‘노력’할래? 늙어서 ‘노숙’할래?’와 같은 자극적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계획표는 이렇게 작성하라면서 영어·수학 사교육이 기본으로 깔려있고, 새벽 1시 취침, 6시 기상으로 고작 5시간 잠만 자는 계획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입시 성공을 위해서는 1년 내내 하루에 12시간씩 학습해야 달성 가능한 양의 공부 시간을 보여주며, ‘인내+반복’ 학습을 강조합니다. 설명회 자료만 보아도 해당 사교육 연사는 ‘노숙하지 않으려면 위해 지금 당장 계획표를 짜고 기출, 오답노트를 무한 반복하는 인내의 사이클로 고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의 메시지를 버젓이 학교 안에서 던진 것입니다.

[그림 3-1]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학교 입시설명회(고1 대상) 프리젠테이션 중



자료: 남녕고 홈페이지(2018.)

학교 설명회는 적으면 수십명에서 많으면 수백명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운집되어 있어 사교육 업체 입장에서 거점 영업망으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에 사교육 업체들은 입시정보 전달을 명목으로 학교 설명회에 연사로 가서 해당 업체의 상품들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홍보·영업 행위를 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설명회를 들은 학교 재학생들에 한해 해당 업체의 학원·인강·교재·대입지원예측서비스 할인권이나 체험권을 제공하고,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설문조사 참석 시 선물을 제공하며 상품 이용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림 3-2]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학교 입시설명회(고1 대상) 프리젠테이션 中 선물

선물

ETOOS 설명회 진행 학교 혜택1

제주 남녕고 특별혜택 제공



ETOOS00040448

[이용방법]
등록기간: 2018년 6월 11일(월) ~ 2018년 6월 21일(목)까지
 등록방법: www.etoos.com(검색) 입시학습) 전국순회 고교설명회쿠폰등록 배너 클릭 후 제공받은 쿠폰번호 입력

[혜택안내]
혜택1. "이투스 전 강좌 7일 무료수강" 등록 후 7일간 자유롭게 수강가능 (신분 호명과 상해배우자 "과제유료강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가능)
 혜택2. "이투스 전 강좌 10,000원 할인권" 강좌 구매 시 결제화면에서 이투스 할인권 선택하여 할인 구매 가능

선물

ETOOS 설명회 진행 학교 혜택2

제주 남녕고 학생 여러분! 오늘설명회는 어떠셨나요?

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시

100% 선물제공



[참여방법]
PC 접속 시 → 이투스 로그인 후 이투스 메인 페이지 배너 클릭 후 설문조사 참여
 모바일 접속 시 → 메인 최하단 배너 클릭 후 참여 or MY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참여가능

* 위생안보에 최고절차가 남녕고등학교 홈페이지에 100% 설문조사 참여가능
 자료: 남녕고 홈페이지(2018.)

학교에서 설명회 연사로 서는 강사들은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다는 사실을 홍보 콘텐츠로 신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사교육 홍보거리를 제공하고 광고 대행을 해주는 격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기관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학교로 진입하는 포문을 열어주며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4]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 사실을 홍보하는 사교육 강사





#무안고등학교 #주영쌤이 #간다
 [이투스 이주영 선생님] 무안고등학교로 주영쌤이 간다~!

자료: 유튜브

학교에서 입시나 학습을 주제로 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교육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진로지도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치러지는 학교 입시설명회라면, 공교육 교사가 연사로 서는 것이 사교육 절감에 대한 공교육의 의지를 방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교육 연사 초빙에 각 학교에서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나 그 규모는 문제의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가 진학지도 책무를 몰각한 채 이를 사설학원에 방기하는 오욕스러운 행태일 것입니다.

물론 단위 학교 내에서나 인근에서 입시설명회에 나설 수 있는 공교육계 연사의 숫자가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문제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공교육 기관의 연사를 섭외하려는 일체의 노력 없이 민간 사교육 기관에 입시설명회를 위임하는 것은 공교육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 치러진 설명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정된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기 섭외된 사교육 연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교육 기관의 연사 섭외가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교 내 사교육 업체의 입시설명회를 근절시켜 사교육 의존으로 점철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음으로써 공교육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 관내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가 초빙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2. 아울러 향후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연사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교육협의회·진학지도협의회 연사 인력풀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입시 지도 및 입시설명회가 가능한 현장 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 방안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9. 12. 0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